

여행객은 ‘1박의 이유’를 예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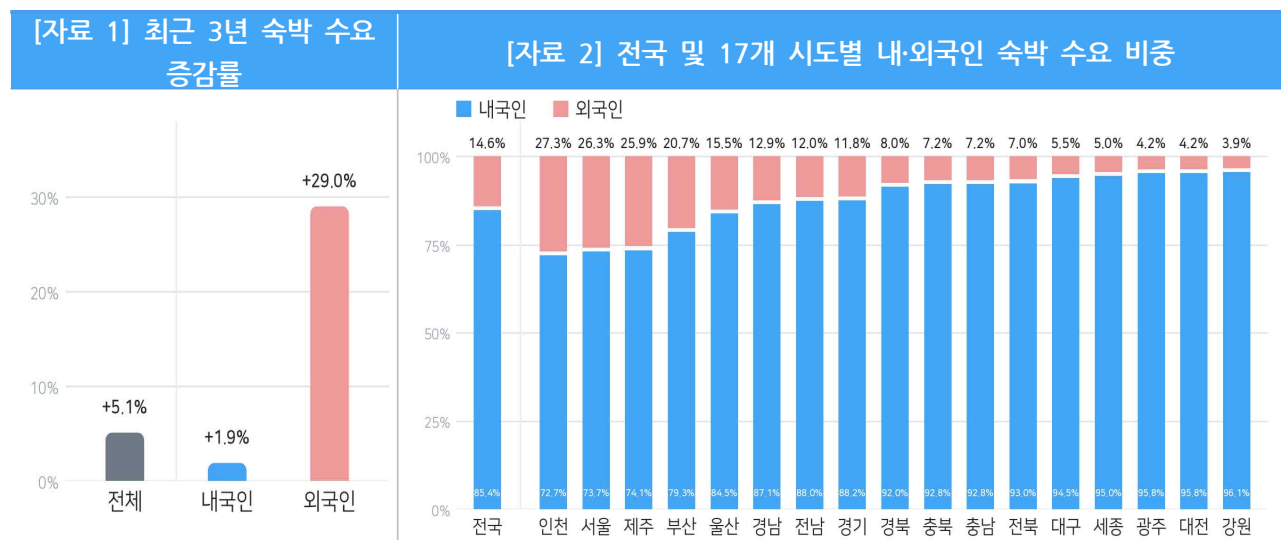
국내 숙박 시장의 성장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전체 숙박 수요의 85.4%는 여전히 내국인이 지탱하지만, 최근 3년의 성장은 외국인이 주도했다. 머무는 지역은 기존 관광거점 밖으로 조금씩 넓어지고, 숙소를 고르는 기준도 달라졌다. 내국인은 숙소 선택을 여러 유형으로 넓혀가는 반면 외국인은 4·5성급 호텔에 더욱 집중했다. 레저시설, 공연, 프로야구 같은 ‘숙소 밖의 경험’도 특정 지역과 시기의 숙박 예약 증가와 맞물렸다.

이번 분석에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이동통신·신용카드·숙박 예약 데이터를 활용해 누가 숙박 시장을 키우는지, 어디에 머무는지, 무엇이 머무는 이유가 되는지, 지역별 숙박 수요와 객실 공급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1. 누가 시장을 키우나: 규모는 내국인이 지탱하고, 성장은 외국인이 이끈다

내국인이 전체 숙박 수요의 85.4% 차지, 외국인은 최근 3개년간 29.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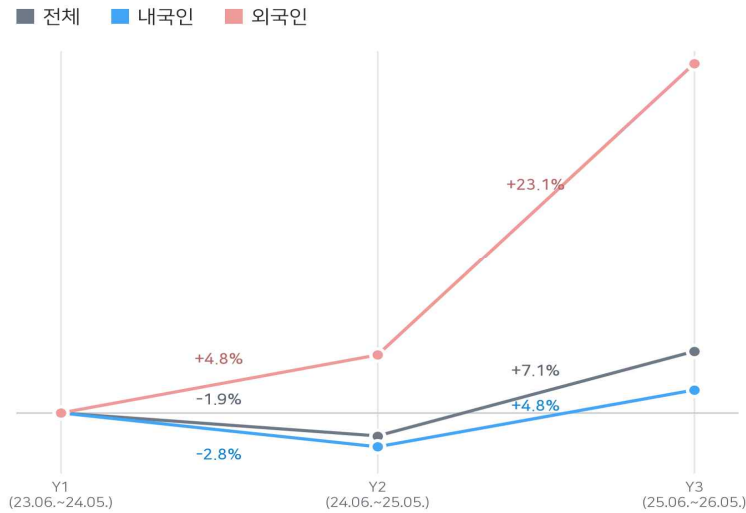
이동통신 데이터로 산출한 내·외국인의 국내 총 숙박 박수는 최근 3개년간 5.1% 증가했다. 내국인은 1.9%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된 반면, 외국인은 29.0% 증가했다. 최근 1년 기준 총 숙박 박수의 85.4%는 내국인, 14.6%는 외국인이지만 외국인 증가율은 내국인의 15배를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인천(27.3%), 서울(26.3%), 제주(25.9%), 부산(20.7%)의 외국인 숙박 비중이 20%를 넘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동통신 내·외국인 숙박 박수별 순방문자수 데이터, 증감률은 최근 3년(Y1: 23.06.~24.05., Y2: 24.06.~25.05., Y3: 25.06.~26.05.), 내·외국인 숙박 수요 비중은 최근 1년(25.06.~26.05.) 기준

특히 외국인 증가율은 직전 1년 4.8%에서 최근 1년 23.1%로 확대돼, 숙박 시장 성장의 무게중심이 외국인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3] 연차별 숙박 수요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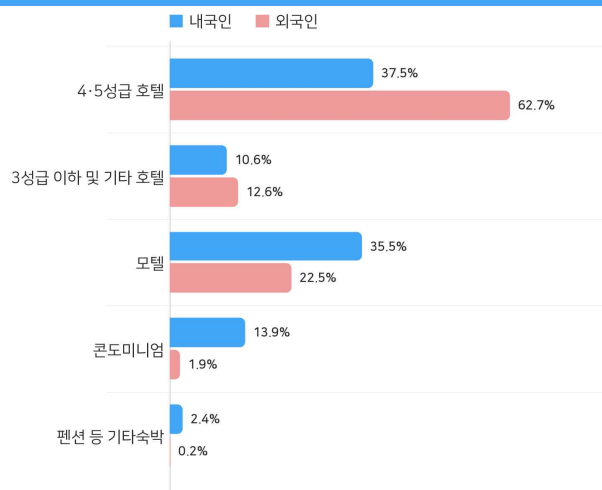
※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동통신 내·외국인 숙박 박수별 순방문자수 데이터, 최근 3년(Y1: 23.06.~24.05., Y2: 24.06.~25.05., Y3: 25.06.~26.05.) 기준

내국인은 숙소 선택 다변화, 외국인은 4·5성급 호텔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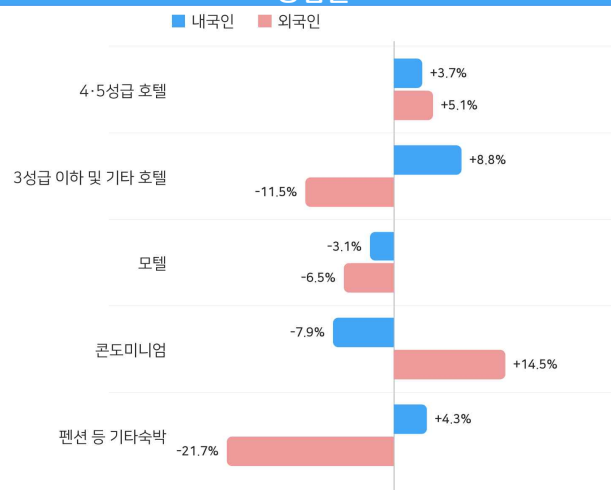
신용카드 결제 금액 기준으로 내국인의 숙박 소비는 4·5성급 호텔(37.5%)과 모텔(35.5%)로 양분된 반면, 외국인은 4·5성급 호텔 비중이 62.7%에 달했다.

최근 3년간 내국인은 3성급 이하 및 기타 호텔(+8.8%), 펜션 등 기타숙박(+4.3%), 4·5성급 호텔(+3.7%)의 결제 금액 비중이 늘고 콘도미니엄(-7.9%)과 모텔(-3.1%)은 줄어, 숙소 선택이 다변화됐다. 반면 외국인은 4·5성급 호텔 비중이 5.1% 늘고, 3성급 이하 및 기타 호텔(-11.5%)과 모텔(-6.5%)은 줄어 상위 등급 호텔로의 집중이 강해졌다.

[자료 4] 숙소 유형별 결제 금액 비중



[자료 5] 최근 3년 숙소 유형별 결제 금액 비중 증감률



※ 한국관광 데이터랩 신한카드 내·외국인 숙박업 결제 데이터, 결제 금액 비중은 최근 1년(25.06.~26.05.), 증감률은 최근 3년(Y1: 23.06.~24.05., Y2: 24.06.~25.05., Y3: 25.06.~26.05.) 기준, 숙소 유형 정보가 없는 내국인 온라인 결제 건 제외

※ 외국인의 '펜션 등 기타숙박' 비중은 최근 1년 0.2%로 매우 작아 증감률 해석에 유의

2. 어디에 머무나: 숙박지도가 기존 관광거점 밖으로 넓어진다

내국인 숙박 지역, 교통·체험을 갖춘 새로운 거점으로 확대

최근 3년간 강원 평창군, 경북 안동시, 부산 기장군 등에서 숙박 예약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안동(+106.4%)은 중앙선 연결 등 교통 여건 개선과 함께 고택 민박·야경 투어 등 체류형 관광 콘텐츠가 확대되었으며, 기장(+78.5%)과 평창(+116.9%)은 호텔·리조트와 대형 레저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새로운 숙박 지역의 부상에는 접근성뿐 아니라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 6] 최근 3년 내국인 예약 비중 증가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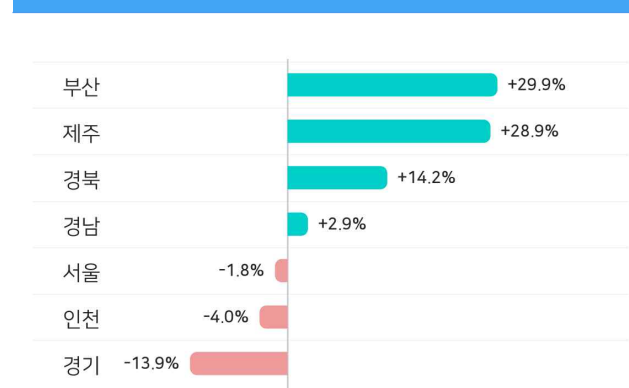
※ 한국관광 데이터랩 '온다(ONDA)' 내국인 숙박 예약 데이터, 최근 3년(Y1: 23.06.~24.05., Y2: 24.06.~25.05., Y3: 25.06.~26.05.) 기준

외국인 숙박도 수도권 밖으로 일부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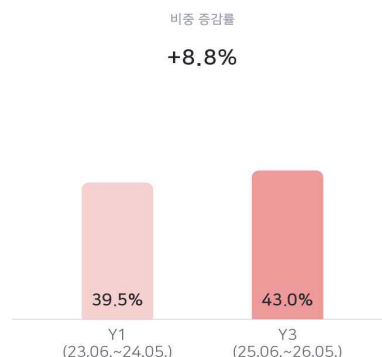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외국인 숙박에서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9.5%에서 43.0%로 3.5%p(8.9%)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부산(+29.9%), 제주(+28.9%), 경북(+14.2%)의 숙박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13.9%), 인천(-4.0%), 서울(-1.8%)은 낮아졌다. 수도권 비중은 여전히 57.0%로 절반을 넘지만, 외국인 숙박 지역이 비수도권으로 점차 넓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경북에서는 안동(24.1%)과 경주(14.1%)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안동과 경주는 중앙선·동해선 개통과 KTX 운행 확대도 이루어지면서 수도권·부산 등에서 안동·경주로의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역사 유산, 한옥, 야경 등 한국적 경험을 갖춘 점이 화력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 7] 최근 3년 시도별 외국인 숙박 비중 증감률



[자료 8] 최근 3년 외국인 비수도권 숙박 비중 변화



※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동통신 외국인 숙박 박수별 순방문자수 데이터, 최근 3년(Y1: 23.06.~24.05., Y2: 24.06.~25.05., Y3: 25.06.~26.05.) 기준

신용카드 외국인 숙박업 결제에서도 인천 중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해운대구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서초구와 강서구 비중이 높아지고 마포구, 중구, 강남구는 낮아졌지만, 중구는 여전히 가장 큰 숙박거점(29.8%)이다. 비중 하락은 수요 감소보다는 여행객의 선택지가 넓어진 결과로 해석하는 편이 적절하다.

[자료 9] 최근 3년 외국인 숙박업 결제 건수 비중 증가 시군구					[자료 10] 최근 3년 외국인 숙박업 결제 건수 비중 감소 시군구				
시군구	비중 증감률		비중		시군구	비중 증감률		비중	
			Y1	Y3				Y1	Y3
인천 중구	+54.5%		7.4%	11.4%	서울 마포구	-20.5%		2.6%	2.0%
제주 서귀포시	+31.0%		2.5%	3.3%	제주 제주시	-19.8%		1.5%	1.2%
부산 해운대구	+10.6%		2.6%	2.9%	인천 연수구	-15.5%		1.7%	1.5%
서울 서초구	+9.8%		2.2%	2.4%	서울 중구	-9.1%		32.8%	29.8%
서울 강서구	+9.1%		1.3%	1.4%	서울 강남구	-3.4%		7.4%	7.1%

※ 한국관광 데이터랩 신한카드 외국인 숙박업 결제 데이터, 최근 3년(Y1: 23.06.~24.05., Y2: 24.06.~25.05., Y3: 25.06.~26.05.) 기준, 지역 정보가 없는 온라인 결제 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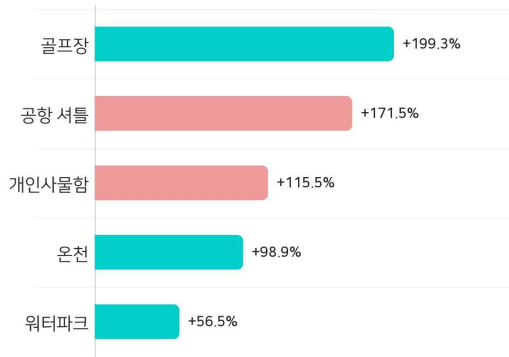
3. 왜 머무나: 숙소 밖의 경험이 ‘1박의 이유’가 된다

대형 레저시설과 가깝고 여행전후 편의를 제공하는 숙소가 내국인에게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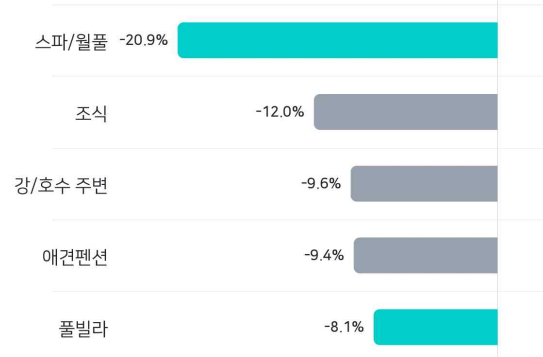
온다(ONDA) 숙박 예약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골프장(+199.3%), 온천(+98.9%), 워터파크(+56.5%) 등 숙소 주변의 대형 레저시설을 테마로 내세운 숙소의 예약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스파/월풀(-20.9%)이나 풀빌라(-8.1%)처럼 숙소 내 시설을 앞세운 숙소는 감소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풀빌라·스파처럼 숙소 안에서 독립적으로 즐기는 프라이빗한 경험이 주목받았다면, 일상 회복 이후에는 골프장·워터파크·온천 등 숙소 주변의 대형화·전문화된 경험으로 관심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공항 셔틀(+171.5%)과 개인사물함(+115.5%)의 증가도 눈에 띈다. 숙소의 부대시설뿐 아니라 공항과의 연결, 짐 보관 등 여행 전후의 실질적 편의를 갖추고 있는 숙소의 예약 비중이 늘었다.

[자료 11] 최근 3년 내국인 예약 비중 증가 숙소 테마



[자료 12] 최근 3년 내국인 예약 비중 감소 숙소 테마



※ 한국관광 데이터랩 ‘온다(ONDA)’ 내국인 숙박 예약 데이터(숙소별 테마태그), 최근 3년(Y1: 23.06.~24.05., Y2: 24.06.~25.05., Y3: 25.06.~26.05.) 기준

K-POP 공연 주간 숙박 예약 증가폭, 외국인이 내국인을 크게 웃돌아

공연이 있는 주의 숙박 예약은 같은 달 비공연 주보다 16.4% 많았다. 특히 외국인 예약 증가폭이 내국인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빌보드 톱 투어 아티스트 5팀의 공연에서는 내국인 예약이 43.1% 증가한 데 비해 외국인은 99.4% 늘어 증가율이 2.3배에 달했다. 블랙핑크·BTS·스트레이키즈 공연에서는 내국인이 101.5%, 외국인이 619.2% 증가해 그 격차가 6.1배로 확대됐다. 글로벌 팬덤이 큰 K-POP 공연일수록 외국인 숙박 수요 증가와 더욱 강하게 맞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13] 공연 주간 숙박 예약 건수 증감률

구분	공연 건수	비공연 주간 대비 숙박 예약 건수 증감(%)		
		전체	내국인	외국인
전체	251	+16.4	+12.8	+20.9
빌보드 톱 투어 아티스트 5팀 (블랙핑크, BTS, 스트레이키즈, 엔하이픈, 세븐틴)	17	+64.1	+43.1	+99.4
주요 아티스트 3팀 (블랙핑크, BTS, 스트레이키즈)	5	+157.4	+101.5	+619.2

※ 한국관광 데이터랩 ‘온다(ONDA)’ 내·외국인 숙박 예약 데이터, 23.01.~26.05. 기준, 공연장 소재 시군구의 공연이 있는 주와 같은 달 비공연 주의 평균 숙박 예약 건수 비교

프로야구 경기일 내국인 숙박 예약 14.5%↑…비수도권 증가 폭은 수도권의 4.2배

프로야구 경기일에도 구장 인근 숙박 예약은 같은 달, 같은 요일의 비경기일보다 14.5% 많았으며 포스트시즌에는 차이가 41.3%로 커졌다. 프로야구는 매년 정규시즌에만 720경기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경기의 증가 효과가 누적되며 만들어내는 연간 숙박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14] 프로야구 경기일 숙박 예약 건수 증감률

구분	전체	요일별		시즌별	
		주말(금·토)	평일(일~목)	정규시즌	포스트시즌
경기일 수	2,042	678	1,364	1,988	51
비경기일 대비 숙박 예약 건수 증감(%)	+14.5	+16.2	+12.4	+13.9	+41.3

※ 한국관광 데이터랩 '온다(ONDA)' 내국인 숙박 예약 데이터, 경기 기간인 23.04.~25.12. 기준, 정규 홈구장 9곳의 야구장 소재 시군구의 프로야구 경기일과 같은 달, 같은 요일 비경기일의 평균 숙박 예약 건수 비교

※ 전체 경기에는 올스타전 3일이 포함되나, 표본이 작아 시즌별 분석에는 별도 기재하지 않음

특히 권역별 증가 폭은 비수도권 구장 소재 시군구가 20.5%로 수도권의 4.9%보다 4.2배 높았다. 이에 비수도권에서는 경기 일정을 숙박·야간관광·지역 상권과 연계해 경기 관람을 지역 체류로 확장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자료 15] 프로야구 경기일 권역별 숙박 예약 건수 증감률

구분	전체	수도권 (고척, 잠실, 인천 문학, 수원)	비수도권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사직, 창원)
경기일 수	2,042	843	1,199
비경기일 대비 숙박 예약 건수 증감(%)	+14.5	+4.9	+20.5

※ 한국관광 데이터랩 '온다(ONDA)' 내국인 숙박 예약 데이터, 경기 기간인 23.04.~25.12. 기준, 정규 홈구장 9곳의 야구장 소재 시군구의 프로야구 경기일과 같은 달, 같은 요일 비경기일의 평균 숙박 예약 건수 비교

4. 수요와 객실의 균형도, 계절적 쏠림도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경기는 연중 고른 수요, 강원, 전남 등은 큰 계절 편차

서울과 경기도는 수요 비중이 객실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면서도(각 1.36, 1.27), 월별 변동계수는 7.6과 9.3으로 전국(11.5)보다 낮아 연중 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반면 강원(25.9), 전남(21.7), 전북(19.4), 경북(19.2) 등은 월별 변동계수가 전국보다 높아 계절적 쏠림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처럼 계절 편차가 큰 지역에서는 객실 총량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시기별 수요 불균형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수기에는 수요 집중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비수기와 주중에는 지역 콘텐츠와 숙박 상품을 결합해 수요를 분산하고 객실 활용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료 16] 시도별 수요·공급 비중 및 월별 수요 변동성

지역	① 수요(총 숙박 박수) 비중(%)	② 객실 공급 비중(%)	③ 상대지수(①÷②)	④ 월별 숙박 수요 변동계수
전국	100.0	100.0	1.00	11.5
서울	17.1	12.6	1.36	7.6
경기	18.7	14.8	1.27	9.3
강원	6.3	10.9	0.58	25.9
부산	6.4	7.6	0.84	11.9
경북	6.1	6.5	0.94	19.2
인천	6.0	5.5	1.09	8.5
경남	5.9	7.4	0.80	17.7
충남	5.5	5.8	0.95	14.2
전남	4.9	5.9	0.83	21.7
제주	4.8	7.1	0.67	10.6
전북	3.7	4.0	0.94	19.4
충북	3.7	3.5	1.06	14.1
대구	3.4	2.3	1.50	14.6
대전	2.6	2.1	1.26	12.0
광주	2.3	2.0	1.14	14.2
울산	1.8	1.9	0.95	12.7
세종	0.7*	0.2	3.21*	12.3

※ 지표별 활용 데이터 및 의미

① 수요 비중: 전국 총 숙박 박수 중 각 시도 차지 비율.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동통신 내·외국인 숙박 박수별 순방문자수 데이터 최근 1년(25.06.~26.05.) 기준

② 객실 비중: 전국 총 객실 수 중 각 시도 차지 비율.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정보-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인허가 숙박 시설 현황(26.07.) 기준

③ 상대지수: 수요 비중÷객실 비중. 지역 간 수요와 객실 분포의 상대적 차이를 보는 참고 지표로 1을 초과하면 수요 비중이 객실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객실 가동률이나 객실당 수용 인원 등을 반영하지 않아 객실의 실질적 부족이나 여유 수준을 의미하지 않음에 유의

④ 월별 숙박 수요 변동계수: 월별 숙박 수요 표준편차÷월별 숙박 수요 평균×100. 값이 클수록 월별 편중이 큼을 의미

※ 통신 기반 숙박 수요는 가족·친지 방문 등 비상업적 체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월 단위 집계이므로 주중·주말 차이와 명절·연휴의 단기 집중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유의

※ 세종은 수요 비중이 1% 미만으로 분모가 작아 상대지수가 크게 나타나므로 해석에 유의

5. 어떻게 대비할까: 여행객이 머물고 싶은 ‘1박의 이유’를 설계해야

코로나19 시기 숙소 안의 프라이빗 경험에 집중됐던 수요가 일상 회복 이후 주변의 대형·전문화된 경험으로 확장되면서, 숙박 선택의 기준도 ‘어디서 잘 것인가’에서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K-팝 공연과 프로야구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공연은 글로벌 팬덤을 특정 도시로 이동시키는 강력한 체류 동기가 되고, 프로야구는 지역 연고와 반복되는 경기 일정을 기반으로 숙박 수요를 만든다.

다만 숙박 시장의 성장 주체와 방문 목적, 계절성은 지역마다 다르다. 따라서 객실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위해 머무는지에 맞춰 공간과 콘텐츠,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외국인 수요가 크고 연중 비교적 고른 서울은 입지별 수요와 사업성을 전제로 기존 시설의 숙박시설 전환 사례를 검토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공연·프로야구·대형 레저시설을 숙박·교통·지역 상권과 연결하고, 계절 편차가 큰 지역은 비수기와 주중에도 방문할 만한 경험을 보완해야 한다.

관광업계도 일정 연계 상품과 셔틀, 짐 보관 등 이동 편의를 강화해 지역 경험이 실제 숙박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결국 숙박 경쟁력은 여행객이 지역의 경험을 더 오래 이어가기 위해 기꺼이 하루 더 머물게 하는 ‘1박의 이유’에 달려 있다.

※ 활용 데이터

한국관광 데이터랩 이동통신 데이터	- 지역별·숙박 박수별 순방문자수 - (내국인) KT 내국인 통신 빅데이터 외지인 기준, 시장점유율 기반 모수추정 - (외국인) SKT 통신 빅데이터 시군구 기준, 법무부 입국자 통계 기반 모수추정 - 데이터 기간: 23.01.~26.06.
한국관광 데이터랩 신용카드 데이터	- 신한카드 내·외국인 숙박업 결제 데이터 - 데이터 기간: 23.06.~26.05.
한국관광 데이터랩 ONDA 숙박 예약 데이터	- 숙박 예약관리 플랫폼 ‘온다(ONDA)’ 제공 내·외국인 숙박 예약 데이터 - 숙소 구성 변동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데이터 기간 내 이탈한 공급사·채널 제외 - 데이터 기간: 23.01.~26.05.
한국관광 데이터랩 숙박업소 인허가 현황 데이터	- 행안부 지방행정 인허가 정보-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인허가 숙박시설 현황 - 데이터 시점: 26.07.기준
공연 일정	- 놀 유니버스 주요 K-POP 아티스트 공연 일정 및 장소 - 데이터 기간: 22.07.~26.06.
프로야구(KBO) 일정	- KBO 공개 경기 일정 데이터 - 데이터 기간: 23.01.~26.05.